

양돈협, 한·EU FTA 돼지고기 양허제외 등 강력 요청

김동환 회장, 외교통상부 방문 양돈업계 요청사항 전달



◀ 지난 8월 10일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이재식 양돈관련조합장협의회장, 윤상의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이 한·EU FTA 협상추진단을 방문하고 한·EU FTA 추진에 따른 양돈업계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한·EU FTA 협상단을 직접 방문해 돼지고기를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하고 FTA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지난 8월 10일 이재식 양돈관련조합장협의회장 및 윤상의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과 함께 김한수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만나 한·EU FTA 협정과 관련한 양돈업계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김동환 회장은 “한·미 FTA가 시행되기 전에 국내 양돈농가의 국제경쟁력 제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한·EU FTA를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국내 양돈산업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만약 국내 축산업을 포기하고 돼지고기 부분에 관세를 철폐할 경우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축산물 중 EU로부터 수입액이 가장 높은 돼지고기를 반드시 양허제외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아울러 협상

단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기도 전에 돼지고기 관세철폐를 언급하는 것은 농업분과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협상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양돈협회가 협상단에게 전달한 양돈업계 요청사항에 따르면, 실제로 EU는 지금까지 체결한 칠레 및 멕시코와의 FTA에서 나라마다 특성을 고려해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양허제외를 적용해 왔다.

특히 EU는 2004년도 기준 농산물 생산액이 미국의 1.5배 수준인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으로, FTA 체결시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EU산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수입가격은 국내산의 45% 수준으로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EU의 냉동 삼겹살 점유율은 70% 수준에 달해 관세철폐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돈**